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감동과 감사    성경: 시119편 65-80절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76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8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119:65-80)

감사가 덕목에서 그칠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사실 감동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에는 감동이 이미 깃들어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감사하고, 심지어는 투자성 감사, 투기성 감사도 있는 듯 하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회씩 해야 복을 받게 된다고 믿고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100마디 감사훈련 보다는 1마디 감동이 깃든 감사가 더 가치있는 것은, 마치 금메달1개가 은메달 100개 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원리와 같다.

물론 영혼 없는 감사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므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감동이 깃든 감사를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요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목상하면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참으로 복되고 의미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간다.

물론 현재로서는 고통을 당하고 비관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부정 부패가 이제는 특권층의 문제도 아니고, 부자들의 문제만도 아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게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민주화 세력들에게는 감사 보다는 비판, 분노, 저항, 폭로 등이 날

마다 쏟아지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비아냥, 위로받기를 거절함, 결코 손해 볼 수 없음, 너무 억울함등이 난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끈을 놓고 자결함, 용서를 빌지도 않는 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도 없음, 등의 막장 드라마식 절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간다. 심지어는 원망도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바라기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말로써 대적하는 분위기나, 탐심이 원인이 되는 반대, 반대하기 위한(싸우기 위한) 반대가 사라져서 진실이 아닌 진리를 위한 외침,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헌신이 힘을 얻어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의 죄악은 세상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이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마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찌다 보니 천문학적인 확률로 저절로 존재하게 된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를 남겨 두셨다.

###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에 더 악을 더하여 이렇게 악랄한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두실 것인가를 실험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는 주실지라도 그것이 곧 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자비가 공존하고 있으며,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진리와 거짓이 힘을 겨루고 있으며, 감사와 원망이

섞여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왜냐면 심판이 마무리 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 열매를 측량하실 것인데, 그때 나에게 감사와 감동과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선행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경건과 같은 좋은 열매들이 풍성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과연 그때 누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겠는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변명을 일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악을 마다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다툰 일이 더 많다면 과연 내가 심판을 건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죄악을 저지를 수 있으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과 희생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행스럽게 시편 저자는 오히려 고난당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제 오히려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하지만, 정신을 차린 저자는 더욱 더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코 핑계 대면서 법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감사의 제목인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이 자신을 정신차리게 하였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감사를 훈련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 (김채섭 목사의 5년 황금기동안의 교만함)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76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분명히 세상에는 심판이 존재하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셨다. 왜냐면 내가 진리를 선택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유익이 되었다.

78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진리에 의해서 엎드리졌다면 나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넘어뜨린 것이 거짓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지금은 내가 저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거짓이니 다행일 뿐이다.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로 비칠 것이 두려워 저자는 작은 소리고 주의 법도를 읊조렸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주의 율례들에 완전한 것이다. 내가 많은 고난 중에 율례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감동이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